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경영부재 심각 존립 위기

이사장 자진사퇴·경영부재 사장 사망 등 잇단 악재 공무원 노조, 공단 관련 전직 구청장들 책임론 성명 발표

광주 광산구 산하 지방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이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이사장이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무를 총괄하는 경영본부장마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등 잇따른 악재로 공단 조치가 흔들리고 있다.

4일 광산구와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2014년 폐기물 수집과 운반 및 공영주차장 운영, 체육시설관리 등을 목적으로 광산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공단 노조의 구청 앞 집단 시위를 시작으로 광산구와 1년 가까이 심각한 갈등을 빚으면서, 경영 책임론 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신선호 이사장이 자진사퇴했다.

광산구는 신 이사장의 자진 사퇴에 따라 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사무를 총괄하는 김모 경영부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6일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지난달 11일 근무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던 김 본부장은 특별한 병명을 찾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는 업무 중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 공단의 경우 5개 노조가 난립한 상황으로, 김 본부장은 조직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경영 혁신 등 노사화합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김 본부장마저 사망하면서, 공단을 둘러싼 내·외부의 경영 부재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공단 노조가 광산구 고위 공직자를 비위행위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광산구에서 공단 간부직원의 공문서 무단 폐기 등의 문제점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광산구와 공단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광산구공무원노조는 이날 내부 계사판을 통해 공단 정상화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나섰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조속히 정상화하라'는 공무원노조 광산지부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에는 공단의 태동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직 구청장들을 잘못된 행태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직 구청장들이 정치 조직 만들기, 치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단을 설립한 뒤 각종 갈등을 방치해 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갈등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도 굵지 않다.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광산구와 공단 노조측과의 유연한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는 여론과 함께 광산구청장이 직접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광산구민 김진석(57)씨는 "주민들은 경제난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광산구와 공단의 싸움은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모르겠다"며 "구청과 공단이 갈등을 빚는 중심에는 구청장이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구청장이 직접 이해 당사자로 나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의회, '이웃사랑·나눔'



광산구의회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

광산구의회 회원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주민 영유아돌봄센터, 참좋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온장애인보호작업장, 월계지역아동센터, 수완지역아동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이용자들을 보살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 한 분 없이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게나마 정성을 전하게 됐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보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어르신들의 '인생을 쓰담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 12명 이야기 작품으로 엮어



광산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인생 이야기를 쓴 글과 손수 만든 작품을 엮어 만든 자서전 '인생을 쓰담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글을 쓰냐고 투정을 부렸는데, 수업이 진행될수록 정말 뿌듯하고 끝나는 것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지역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인생을 쓰담다'를 출판했다.

자서전은 올 5월부터 9월까지 2개 마을복지관에서 진행된 광산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 12명이 본인 인생 이야기를 쓴 글과 손수 만든 작품을 엮어 마을복지관별 한 권씩 총 두 권으로 제작했다.

광산구는 자서전 출간 및 프로그램 종강을 기념해 최근 모아 마을복지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어르신들의 소감 및 책에 담긴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 등을 가졌다.

또는 오는 14일 광산구 경암근린공원에서 열리는 '오로라페스티벌'에서 '인생을 쓰담다' 책을 알리는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소소해서 특별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기록하고 담아낸 '인생을 쓰담다'가 지난 5개월여 함께 해준 어르신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어르신들이 소외됨 없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고령층에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

나의 재난 취약점은?

광산구, 재난 위기 인식도 검사 통한 맞춤형 안전 교육 추진



광주 광산구는 "오는 12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위기 인식도 검사를 통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

검사 항목은 평소 겪을 수 있는 위험 상황으로 구성됐으며, 자연 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분야 등 3개 영역 17개 분야 퀴즈 형식이다. 사례 중심의 구체적 위기상황이 주어지며 그 상황에서 자신의 대처 능력을 간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진단 완료 후 결과, 분석표, 오답 노트 등을 즉시 제공해 올바른 위기 대처 요령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광산구 21개 동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에 부착된 포스터의 QR코드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광산구는 이번 재난 인식도 검사 결과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민 안전교육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진단 검사가 시민이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대처법을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안전 위험 요소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청년도전 지원사업 목표 조기 달성

200명 목표 취업 촉진·진로 탐색 등 지원...9월 268명 참여

광주 광산구는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으로 올 연말까지 추진 중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목표치를 조기에 초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북한 이탈주민 청년 등을 대상으로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공모에 처음으로 선정된 광산구는 올해 지원 대상 200명(도전프로그램 75명, 도전+프로그램 125명)을 목표로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사업이 예정됐는데, 9월 말 기준 268명(도전 130명, 도전+ 138명)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미 목표치를 68

명이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 실제 청년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한 결과물이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남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취,창업과 연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청년에게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참여수당과 더불어 참여 정도와 횟수 등에 따라 교통비 등 실비수당을 지원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 청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일자리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하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광산구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 경로식당 미운영에 따른 어르신들의 급식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식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 어르신 63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새정치연합, 송년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으로 구성된 식판을 제공했다. <사진>

광산구는 어르신 결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원자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식품을 추가로 확보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